

여수광양항,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1위

1억 100만...전국 항만 20% 석유화학·제철·컨테이너 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22년 상반기 여수광양항 수출입 물동량이 1억 100만t을 기록해 국내 1위 수출입 항만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여수광양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석유화학 관련 제품 7200만t, 제철 관련 제품 4500만t, 컨테이너 100만TEU 등 총 1억 100만t의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는 전국 항만의 수출입 물량 중 5분의 1(20.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1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울산항 8200만t(16.5%), 부산항 8100만t(16.4%), 인천항 6100만t(12.3%) 등이 뒤를 이었다.

항만 공사는 대한민국 수출입 시장에서 여수광양항의 높은 비중은 국내 최대 산업항만으로서 그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수광양항은 여수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제

품, 광양제철소의 철강 화물을 기반으로 자동차, 컨테이너까지 대부분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전천후 종합항만이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이에 공사는 국내 수출입 1위 항만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자족적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이를 통한 융복합 항만생태계 조성, 국내 최초 R&D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운영, 완전 자동화부두 개발 추진, 국내외 우량기업 여수광양항 유치 등이 YGPA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대내외 약재도 우려된다. 중국 도시 봉쇄 및 러우 전쟁에 따른 선박량 감소,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의 항만 적체로 인한 정기 컨테이너선 서비스 정시성 하락 등 3중고로 인해 항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TEU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긴 했지만, 하락

폭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같은 기간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 2.1%, 인천항 9.1%, 울산항 18.2% 각각 감소했다.

공사는 여수광양항의 물동량 하락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의 선사는 물론 화주를 대상으로 CEO, 임원진, 실무진들이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물로 분석했다.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 국내외 상황과 여수광양항의 장점을 결합해 타깃화물을 유치하는 전략도 주효했다고 봤다.

상반기 109척의 부정기선(부정기 물량 13만TEU)을 유치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28척(4만TEU) 대비 289.3% 증가한 수치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공사의 경영 방침 중 하나인 '발로 뛰는 영업'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여수광양항의 위상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며 "낮은 자세로 고객과 국민들에게 다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여수광양항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 응치면 한 농가에서 응치 올벼쌀을 수확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지리적표시 71호 보성 응치 올벼쌀 첫 수확

125농가 140ha 재배

보성의 특산물 중 하나인 응치 올벼쌀 수확이 시작됐다.

보성군에 따르면 응치면 125농가가 약 140ha에 올벼쌀을 경작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57%를 차지하는 응치 올벼쌀은 2010년도에 지리적표시 제71호로 등록, 전국적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응치 올벼쌀은 찰벼만을 사용, 전통방식의 가마솥에 수증기로 쪄 햇볕에 건조하고 현미로 도정한

쌀이다.

보성군은 응치 올벼쌀 판매 촉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룽지·과자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대도시 판촉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형준 응치면장은 "이상기후와 농가 일손 부족, 코로나19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올벼쌀 생산을 위해 노력한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수확의 기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관광 홍보 웹드라마 '무지개' 웹페스트 특별상

여수시가 제작·발표한 여수관광 홍보 웹드라마 '무지개'가 제8회 서울 웹페스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여수시 웹드라마는 2016년 '신지개의 사랑 이야기'부터 이번 '무지개'까지 7년 연속 웹페스트 수상으로 작품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웹드라마 '무지개'는 아름다운 음악도시 여수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약공정에서 시작해 현재의 버스킹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일곱 명 무지개 친구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곱 색깔 무지개와 음악의 7음계처럼 흑과 백이 없는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서울 웹페스트 수상으로 LA 웹페스트에도 공식 초청됐다.

한편, 서울 웹페스트는 웹드라마 전문 국제영화제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구로 롯데시네마에서 개최됐다. 해외 28개국 151편, 국내 작품 40편 등 총 191편이 열띤 경쟁을 펼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7년 연속 수상으로 여수시 웹드라마의 작품성을 인정받게 됐다. 대한민국 대표



제8회 서울 웹페스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여수관광 홍보 웹드라마 '무지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관광도시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웹드라마 '무지개'는 여수시 유튜브 '힐링여수'를 통해 볼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생 20명 모집

31일~다음달 6일 접수

구례군은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 확대를 위한 교육생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농산물 가공창업 예정자에게 꼭 필요한 기초 이론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를 활용한 분말, 잼, 추출음료, 환, 과립 등 다양한 조별 제품개발 실습 교육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서류를 갖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군 농업기술센터 야생화연구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작년 교육을 이수한 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법인에 가입한 55명의 농가들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으로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2020년 12월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아 2021년에 14가지였던 제품이 올해는 21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 해경교육원, 초등교사 생존수영 교육 성료

차별화 교육 지도역량 강화 도움

해양경찰교육원이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해경교육원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여수 교육원 내 실습장에서 교사 19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해경교육원은 올해 6월 초등 교사 직무연수 공

식 기관으로 지정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실습장에서 다양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차별화된 교육으로 지도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

여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실제 상황 중심의 교육을 통해 생존 수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연수 과정을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원 확보

'농촌 유희마을' 등 청년 사업 추진

곡성군이 100여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고 '농촌 유희마을' '청년 체류공간 조성'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곡성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동안 16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도입됐으며, 곡성군은 B등급에 선정돼 올해 72억원 내년 96억원을 지원받는다.

곡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청년인구 유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젊어지는 곡성'을 목표로 유희

마을과 청년 체류형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곡성유희마을을 조성사업은 농촌으로 전향오는 도시민들에게 거주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체류형 거점공간은 휴식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청년층 중심 거주 및 공유 공간 조성' '곡성형 유포피아 시범마을 구축'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 연계 거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젊어지는 곡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청년 인구 유입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기금 사업이 인구 증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